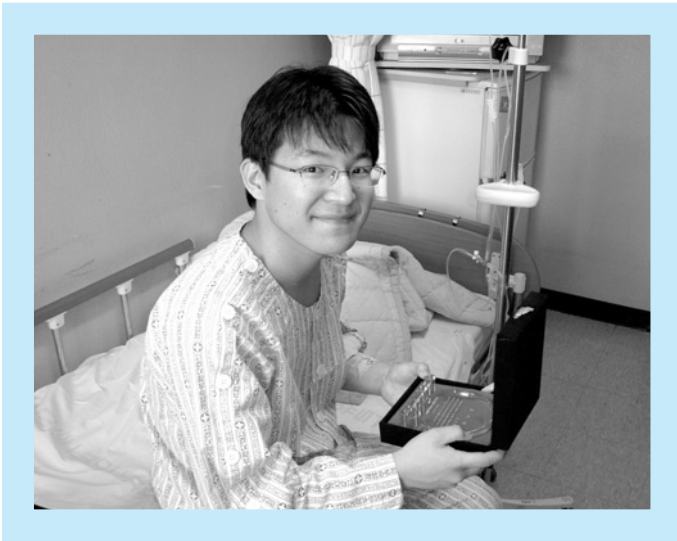




함께 하시겠나요?

기증자 / 김경호 님



“그리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뭘, 괜찮아요. 하하.”

주변에서 어려운 일 혹은 좋은 일 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한 대답인거 같습니다. “많이 아프다던데 괜찮아?”, “전신마취하면 머리 나빠진다던데 정말 어리버리해졌는데?” 격려 혹은 장난스러운 반응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 오해를 조금씩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조혈모세포기증을 결심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내 몸 어딘가의 피를 주는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통해 몸에 구멍을 송송 뚫어 놓아서 피

부를 스핀지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기증을 하기 전에는 ‘정말 그럴까?’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기증수술을 하고, 아물고 나서 만져보니 6~7개 정도의 여드름같이 도드라진 흉이 몇 개 생겨 있었습니다. 스핀지같이 되지는 않았더군요.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엄청 아프다.” 였습니다. 개인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아프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약간 움직임에 불편이 있

을 따름이었지요. 지혈과정에서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맞긴 하였지만, 이내 잠이 들 정도로 아픔이 쉽게 가라앉았습니다. 골반 쪽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걷는 것이 쉽게 되지 않아 어기적거리고 걷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3일째부터는 거의 정상처럼 걸었습니다. 단지 속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였지만요. 남자들 고래 잡았을 때 어기적거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수술하기 전이랑 유사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목요일에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옆으로 한 집사님께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 했구나. 어머니도 어려운 결정하셨고. 그런데 언제 수술이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벌써 했는데요.”, “어머 정말? 멀쩡하네?” “네! 하하.”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나름대로 힘들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도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내가 기증하긴 한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정말 짧은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간의 불편이 있었

을 뿐인데, 한 사람의 고통 아니, 그 가족의 고통이 없어졌다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결실일까요? 한 사람의 불편함이 한 환자의 몸뿐 아니라 한 가족이 지고 있던 마음의 짐과 고통까지 덜어주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잘 믿기지 않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니 저 스스로 참 대견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는 저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땅의 기독교인께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제 몸에 난 흉터를 만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건강을 나누는 사랑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다른 헌혈

기증자 / 김지환 님



조혈모세포기증을 시청한지 1년여 만에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쁜 통에 전화를 받아서 당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기증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명을 했을 터인데, 막상 나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분이 계신다는 전화에 순간 부담감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나에게 전화를 주신 분은 제가 기증 서명하였다는 사실과 그 당시의 결심을 기억시켜 주기위해 무지하게 노력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미안함을 느낍니다. 30여 분간의 통화로 확인과정을 얘기하였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과 부탁은 “부모님과 가족들의 확실한 동의가 필요 합니다... 정말 가능한가요?”였습니다. 아마 저의 걱정을 반영해주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기증자들이 겪는 난처함을 보여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느낀 처음의 불안감은 조혈모세포기증 후의 후

유증이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혈모세포기증은 “수술 후 매우 아프다.”,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심한 체력적 활동이 불가능하다.” 등의 유언비어였기 때문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문에 마음 졸인 것을 생각하면 괜스레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기증자의 경우처럼 저 또한 부모님의 반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해심 뒤로 만만치 않은 어머니의 걱정이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건 기회예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하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물론 당신을 설득 후 수술이 끝날 때 까지 걱정을 놓지 못하셨지만, 퇴원 후 바로 등교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저의 모습을 보신 후에 예전의 걱정들이 괜한 일임을 아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증을 통해서 보람찬 일을 했다란 것 보다, 헌혈과 조혈모세포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익숙하진 않지만 생각만 조금 바꾼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코디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수혜자분에게요. 앞으로 조혈모세포기증이 잘못된 소문으로 가로 막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증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사랑을 나누어 주면...

기증자 / 박희경 님



기증자 박희경님과 가족

가게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오니 남편과 아이들은 곤히 자고 나를 기다리는 낯선 한통의 우편물...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가슴은 쿵쿵 뛰고 온몸에는 이상한 전율이 감싸고 있었다. 첫 번째 보낸 우편물은 분실이 되었는지 두 번째 보내온 편지기에 간곡한 내용이였다. 순간 환자분이 그 안에 어떻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고, 모두가 잠들어 있을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코디네이터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를 남겨 놓고 그날 밤을 떨리고 들뜬 맘으로 밤을 꼬박 세운 것 같다. 이튿날 담당코디네이터선생님과 통화를 했고, 30대 여자환자분과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내용과 진행과정을 듣고 유전자확인검사를 위해 채혈날짜를 잡았다. 가슴 벅찬

이 순간들이 어찌 표현이 될까? TV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해 꺼져가는 생명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나의 유전자와 맞는 환자가 나타나길 얼마나 기다렸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었다.

조혈모세포기증을 하기 위해선 우선 나의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하기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지금까지 병원에 갈일이 없었던 나에겐 병원문 자체부터 낯설고 무서웠지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나온 직원이 너무도 친절하게 모든 걸 안내해 주셔서 모든 검사를 잘 받을 수 있었다. 1주일 후의 검사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상이 없기를 기도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만을 소망하며... 며칠 후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연락이 왔고 가슴벅찬 날들이

이어졌다. 이제 며칠 뒤면 드디어 기증을 하게 된다. 전신마취와 수술 후의 통증을 상상하며, 무섭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거둬 주옵소서...’

건강검진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위로를 받고 있었기에 혼자서 견뎌야 될 일이었다.

미리 주위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나를 격려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흔들여 놓고 좋지 않은 얘기를 늘어놓을게 뻔하기에 오랜 시간을 혼자만이 간직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기도 했다. 가족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었기에 코디네이터선생님은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컸나보다. 일단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친정엄마야 장기를 기증해 놓으셨으니 적극적으로 찬성이신테고 두 오빠내외는 목회의 길을 걷고 있으니 반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언니들도 걱정은 되지 않았다. 조혈모세포 기증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에 조금은 놀라리라 예상하며 작은오빠내외에게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고 수술날짜가 잡혔다고 얘기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였기에 조금은 놀라시며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남편과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입이 왜그리도 떨어지지 않는지.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하며 동의를 구하는데 남편의 긴 한숨과 함께 잠깐의 침묵이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두 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며칠이 지난 후 진지하게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었다. 이제 15살인 큰아들이 18살이 되면 자신도 조혈모세포기증을 하겠노라 선뜻 결단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이지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

작은아들은 욕심스런 얘기를 하며 기증할 맘이 없다는 말을 했다. 순수한 맘을 갖지 못하는 작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며칠이 지나 “엄마 나도 조혈모세포라는거 나이가 되면 기증할래요.” 라는 말을 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가. 나의 강요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해서 결단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소중함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나. 나의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부모의 몫이라 생각한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과 남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란 걸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의 작은 헌신으로 두 아들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수백 번의 말보다 엄마의 조금의 고통을 보면서, 사랑을 나눠가지는 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아갔으면 싶다. 수술전날 병원에 입원을 했고 코디네이터선생님이 미리 나와 모든 절차를 밟고 기다리고 있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불편 없이 지낼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냉장고에 먹을 것들로 가득 채워 놓기까지 했다. 수술 날이 밝았다. 가슴이 새벽부터 뛰기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마취며 낯선 수술실, 목소리들. “마취합니다.” 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엉덩이의 묵직함과 이상아랫한 통증. 지혈시키기 위해 모래주머니가 나의 엉덩이에서 몇 시간을 나와 함께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그렇게도 아프다던 통증이 바로 이젠가 싶었다. 내가 생각했던 통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미했다. 여기서 더 아프려나 하는 생각은 비껴가고 통증의 강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젠 이식 받은 환자가 걱정이다. 조혈모세포가 잘 정착되어 완치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 나와 이식받은 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 해주셨던 대구의 대봉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청주 참아름다운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수술전날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주신 대전의 대성교회 정명협목사님, 나의 간병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식을 사와 입을 즐겁게 해주었던 중심이, 가슴아파하며 기도해준 남편,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신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직원분들, 날 위해 애써주신 조문희, 장진호, 이지혜선생님, 많은 아름다운 분들을 위해 이 글을 통해 감사함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난 이번 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해 사랑의 빛진자가 되었다. 나 혼자 힘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의 기도와 격려, 사랑으로 뭉쳐진 합작품이다. 기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혜자지만 기도의 힘으로 건강한 모습을 찾아 새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며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준 그분께 감사한다.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나와도 가족의 반대 또는 본인의 기피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에서 무엇인가 끓어 올랐다. 조혈모세포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건강이 보장되기에 행할 수 있는 특권인데, 왜 포기하고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조혈모세포기증은 축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다. 기증자는 몇 시간의 고통만 참으면 되지만 수혜자에게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찌 포기할 수가 있는 일인가. 기증을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증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참여하고, 자신의 내면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자세가 틀려졌음을 느낀다. 조금만 나의 사랑을 나눠주면 이세상은 좀 더 따뜻한 세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으로 가득찰텐데...

얼마 전 모 TV에서 안구기증을 받아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나라에선 기증자가 적어 외국에서 안구를 수입해 와서 이식수술을 한다는 소리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며칠이 지난 지금 나 자신과 또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조만간에 장기를 기증하리라고. 또한 소망이 있다. 나와 유전자가 맞는 환자가 또 나와 조혈모세포기증의 기회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 조혈모세포기증신청을 해 놓고도 유전자가 맞지 않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기증신청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유전자형이 맞는다 해도 건강에 이상이 있어 기증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혈모세포기증까지 이어지는 일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난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걸 찾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언젠가 다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편지 봉투가 날아오길 기다리며...

수술 후의 나의 생활은 활력이 넘치고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해졌음을 느낀다. 좋은 기회를 통해 좋은 생각을 하며,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던 작은 일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든 것 같아 너무나 기쁘고 건강의 축복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04년도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해였다. 그러나 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나 자신을 회복시켜준 기회가 되었다. 2005년도 새해를 가장 보람 있게 맞이했다. 끝으로 항상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애쓰는,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넘치는 협회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증결심의 최대난관은 무지에 의한 사회의 벽

기증자 / 임우택 님



“조혈모세포기증에 동참하세요~!” 학교 캠페인 부스에서 안내 하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말에 나는 선뜻 신청을 했다. 그리 큰 결심도 필요 없이, 좋은 일 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젊은 혈기에서 그랬던 것 같다. 그 후 한달쯤 지났을까? 주말 낮잠을 달게 자고 있을 때였다. 나와 같은 유전자의 환자가 있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나는 혼쾌히 기증하겠다고 수락했다. 부모님과 지인들도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된 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너 그거 하면 엄니 아들 아니니깐 그런 줄 알아!”

호통을 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었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누가 그러는데 그거(조혈모세포기증)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 병신 뻘뻘더라.” “그거 하면 뼈가 약해져서 평생 힘도 못쓰는더라.” “너 장가도 안 갔는데 허리병신 되면 어쩔래?” 등의 말들을 나를 아끼신다는 지인들께서 어머니께 하셨던 것이다. 실제와는 다른 잘못된 기사와 사실들이, 좋은 신문기사와 참 진실을 알기 전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의료계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잘못된 루머에 물들어 있던 것이었다. 그런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어찌 안 믿

으시겠는가?

그 후로 기숙사 생활을 하던 나는 집에 오는 날이면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어머니는 얼굴도 안 내비쳤다. 나는 인터넷과 신문 기사를 뒤져 잘못 오도된 부분에 대한 사실해명 등 여러 자료를 모았다. 프린트하여 어머니 침대맡에 두고, 말씀을 하셨던 지인 분들께도 사실을 알렸다. 허나 잘못된 루머로 인식 되어 진 어른들의 사고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는 결심한대로 기증수술을 하게 되었다.

병실에 오신 어머니는 코디네이터선생님을 무슨 사기꾼 앞잡이 보듯 하시고, 나는 철부지 못한 아들 보듯 하셨다.

기증수술 후 만나절도 안돼 멀쩡히 까불어 치며 돌아다니는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마음을 놓으셨고, 수혜자에게 전할 말씀 없으시냐는 코디네이터선생님께 어머니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 말씀을 하셨다.

그 후 주변의 강권으로 난 일주일 정도 꼼짝 않고 곰탕만 삼시 세끼 먹었다. 그 해 겨울은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날 아낀다고 걱정 아닌 걱정으로 루머를 말씀하셨던 분들은 아주 동네 자랑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셨고 덕분에 동네서 착한 총각이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들은 것 같다.

이 글에 쓸 말이 많진 않지만, 기증을 하고자 마음먹은 분들이나 주위에 기증하려는 분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골반에 바늘을 꽂아 조혈모

세포를 채취하는 순간도 아니고, 수술 후 회복하는 기간도 아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들이 서로를 아낀다는 입술에서 나올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사회적인 벽을 만들고 그 벽이 다시 꽃필 기회를 가진 한 생명을 짓밟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벽을 허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또한 우리의 입술이다. 격려와 칭찬의 입술, 바른 사실을 알리는 입술, 그리고 신께서 부여한 한 생명을 살릴 특혜가 주어진 당신에게 박수 쳐주며 웃음지어주는 그 입술이 모일 때 벽은 어느새 허물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 가지 부족한 나에게 그런 큰 특혜를 주시고 이렇게 글 쓸 기회까지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담당 코디네이터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